

# 응암동 675 일대 '신통기획' 확정 1120세대 규모 열린 주거단지 조성

### 서울시 주변지역 상생 초점 서부선 연계 공원계획 마련 일조영향 등 교육환경 보호

서울시가 응암동 67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통통합기획을 착수 7개월 만에 확정했다. 이로써 대상지는 최고 27층, 약 1120세대 규모의 응암초등학교를 품는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신통통합기획에서는 학교 일조 영향으로 불리한 사업 여건을 극복하고, 학교·주변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서울시는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해 지역과 연결되는 안전한 통학로와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일방통행과 시간제 통행 제한으로 차량 통행이 불편했던 가좌로6길은 양방통행으로 변경하면서 가좌로까지 연결해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가좌로 진출입구 주변에 가감속차로와 백련산



서울 응암동 67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통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서울시

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신설해 내·외부 교통 영향도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형순응형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최대 26m의 고저 차를 활용해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계단·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보행약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서부선(신설)과 연계한 공원계획도 마련됐다. 단지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열린 단지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학교 전면에는 어린이·주민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계획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공원 복합화시설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서울형키즈카페)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등 일조 영향을 고려해 응암초 남측 연접부는 10층,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연접부는 15층 내외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는 등 교육환경을 보호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네이버클라우드, AI 중심 대학 인프라 혁신

### 한국외대 업무협약... 연구환경 개선

네이버클라우드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해 AI 기반 교육·연구 혁신과 AI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

네이버클라우드와 AI 기반 스마트캠퍼스 구축과 AI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인프라와 한국외대의 교육 역량을 결합해 AI 중심 대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한국외대 연구 환경에 최적화된 GPU 인프라를 제공하고 하이퍼클라우드X 기반 AI 행정·학습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외대의 언어역량을 활용한 다국어 행정 서비스 도입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얼굴 인식 기반 출입·결제 시스템과 네이버웍스를 활용한 행정·학습 협업 환경 등 스마트캠퍼스 구축에도 협력한다. 네이버클라우드 아카데미와 클라우드 플랫폼 교육 과정을 정규 커리큘럼과 연계하고 인턴십, 채용 박람회, 기술 멘토링 등을 통해 AI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스마트캠퍼스 구축 및 AI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기훈 총장(왼쪽)과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AI 기술이 실제 교육과 연구 현장에 활용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네이버 제2사육인 1784와 같이 한국외대 또한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기훈 한국외대 총장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력은 AI 기반 스마트캠퍼스와 미래형 교육·연구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 교육부, 초·중등 AI 교육담당 교원 역량 강화

### AI 교육 전반 연수체계 구축 2029년까지 1만명 이수 목표

교육부가 초·중등 인공지능(AI) 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 과정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교원의 AI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과정' 개발을 2026년 2월 완료하고 5월부터 연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초·중

등 AI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수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 개발한 이번 연수 과정은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와 활용, 윤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교과수업과 연계된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 최신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영향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해 AI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연수 체계를 구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수 과정은 교원의 수준과 역할에 따라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이어지는 멀티트랙 구조로 운영된다. 기초 단계

는 AI 기본 개념과 수업 적용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심화와 전문 단계는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이해와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수 대상은 초등 교원과 중·고등학교 정보 교사,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과목 담당 교원이다. 각 교과 특성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교과별 맞춤형 AI 교육 연수 과정으로 설계됐다.

교육부는 오는 5월 기초 연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심화와 전문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약 3000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2029년까지 총 1만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친환경 농업분야 1970억 투입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 사업 추진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197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이 발표한 '2025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5,743ha로 2024년(5,334ha) 대비 7.7% 증가했다. 경기도 전체 경지면적 가운데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도 4.0%를 기록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친환경 인증농가 수도 5,135호로 2024년(4,737호)보다 398호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경기도는 이러한 증가세가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의 결과라고 보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친환경 농업 확산에 총 1,9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친환경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학교·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등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강화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서울시교육청, 교과서 배부 등 학교 행정업무 지원

### 인력 채용·위생관리 등 업무 경감

서울시교육청이 교과서 배부와 인력 채용, 공기질·수질 검사 등 학교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하며 신학기 학교업무 경감이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통해 추진한 지난

2월 기준 주요 학교 행정업무 지원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신학기 준비 지원 분야에서는 전체 대상 학교의 79.9%인 1031교가 교육지원청 지원을 통해 신학기 시작 전 교과서 배부 업무를 마쳤다. 학교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도 기간제 교원 223명(158교), 교육공무직 대체 직원 296명(194교) 채용을 지원

했다. 환경 위생 관리 분야에서는 학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야 했던 공기질 관리와 수질 정기검사 업무를 일괄 지원하고 있다. 학생 안전 교육관련해서는 1034교(61.2%)를 대상으로 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 일정을 조율했으며, 136교에 대해서는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안내와 일정 조정 등 행정 절차를 지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17일 (화) /음력 : 1월 29일

수도권 날씨: 2 ~ 1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4/15, 동두천 -2/15, 파주 -4/15, 서울 2/15, 양평 -2/16, 양주 -3/16, 인천 1/12, 수원 1/15, 용인 1/15, 평택 -2/16

해돋이: 06:41 / 해질: 18:4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 트럼프 “중국도 군함 보내라”... 중국, 동참 가능성 낮아 /사진 뉴시스
- ▲ “전쟁 중 첫 소득세 인상”... 우크라이나 ‘금융 전선’서도 사투

- ▲ ‘유가 급등’ 중동 전쟁 충격에... 인도 ‘9조원’ 긴급 기금 추진
- ▲ 주일미군 중동 파견 소식에 日 오키나와서 반대 시위... ‘거점화’ 우려

- ▲ 中·베트남 ‘3+3’ 장관급 회의... 외교·국방·공안 협력 논의
- ▲ 日, 美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요구받지 않아... 대응 검토”